



고우영
 삼국지

三國志

글·그림 고우영

채색 고성연

〈146〉

※일부지역은 인쇄 사정상 흑백으로 연재합니다.

성공 창업은 IS*와 함께~
 ... 광고문의 ...
 02*6363*1362
 02*6363*1366

Blog+

〈참여방법〉 ① 블로그를 만든 뒤 ② blogplus.net에 방문, 블로그를 등록 ③ 인터넷 핫이슈를 블로그에 쓰면 됩니다.

예쁜 여자와 못생긴 여자가 같이 다니는 이유

어제 식당에서 저녁을 먹는데, 평소 궁금해 오던 것이 눈에 띄더군요. 늦은 시간의 저녁식사라서 식당 안에는 우리 테이블과 젊은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 두 분이 식사를 하고 있는 테이블뿐이었습니다. 당연히 식사를 하면서 눈에 그 여성분들이 눈에 띄더군요. 한 분은 긴 생머리에 화장도 나름대로 잘 어울리고 예쁘게 하고 관리를 잘 하신 소위 인기 있어 보이는 모습의 소유자이고, 다른 한 분은 작은 키에 부스스한 머리를 질끈 뒤로 묶어 버리고 다소 몸집이 있는 뚱뚱한 스타일의 화장을 하지 않은 잡티가 그대로인 여성분이었습니다.

보통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는 데, 착한 마음씨는 똑같을지 모르나, 일반적으로 먼저 보게 되는 겉모습이 서로 상반된 두 스타일의 소유자가 함께 다닌다는 것이 조금 균형이 맞지 않게 보였습니다. 왜 영화 속에서도 가끔 나오잖아요. 예쁘고 매력적인 여자가 자신을 더욱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못생긴 여자를 친구로 삼고 남자를 만나거나 기타의 자리에 함께 다니는 장면은 심심치 않게 등장하는 소재거든요. 한때 가끔 보면 이것이 영화나 드라마 속의 장면이 아닌 실제 현실에서도 종종 보게 되는 장면입니다. 물론 모두가 그러한 것은 아니지만 혹시 그런 사례가 아닌지 문득 궁금해 집니다. 나중에 나날 때 식사도 다소 외모가 빠지는 분이 계산하더군요. 궁금해서 직장이나 친구들에게 직접 물어보니 의견이 분분하더라고요. 대략적으로 아래와 같은 여러 갈래의 대답들이 나왔습니다.

1. 그냥 서로 마음이 맞고 친하니까 친구 사이 유지되

는 거겠지. 2. 못생긴 여자친구 달고 다니면 돈보이니까 그렇지. 3. 일부 못생긴 사람은 대체로 자격지침에 돈을 잘 쓴다. 4. 예쁜 친구가 있으면 대만해 보이니까 애써 친구 유지. 5. 서로의 부족한 부분의 심리적 안정. 6. 상관없이 그냥 친구인가 보지. 7. 오랜 시간 함께 한 학창시절 죽 마고우.

대체로 주변의 여성분들은 위와 같이 대답이 제각각



이었습니다. 남자인 제 입장에서 크게 세 가지로 좁혀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 예쁜 여자가 못생긴 여자를 달고 다닌다. 의도된 목적이 있어 다소 자신보다 외모가 빠지는 여자 친구를 만들어 함께 다니는 경우도 종종 볼니다. 아주 예쁘지 않더라도 자신보다 더 못한 사람을 데리고 다니면 자신이 돋보인다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되겠조. 실제로 아주 친한 친구에게 물어보니 자신도 그렇게 이용할 때 있었다고 말해 주더군요.

돈도 잘 쓴다고 하면서...

2. 오랜 시간 함께 한 친한 친구 사이

친구라는 것에 조건은 없습니다. 함께하고 공감하고 생활한다는 자체에 좀더 친한 친구가 나올 수는 있겠지만, 친구라는 말 자체를 놓고 본다면 이렇게 이상하게 바라보는 견해도 잘못된 거겠조. 오랜 시간 중고등학교 때부터 절친한 친구 사이라 시간이 지나도 잘 유지되고 편하게 만나는 진짜 친구 말이지. 주변에 비슷한 부류의 여성들을 만날 때 몇 번 물어본 적이 있는데, 언제부터 알고 지내는 친구 사이 인지를 물어보면 대부분 성인이 되어 만난 얼마 되지 않은 친구들이 많더군요.

3. 상대를 보면서 대리적인 만족

예쁘고 화려한 여성의 경우는 여기저기 관심을 많이 받게 됩니다. 상대적으로 파곤해질 수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만나 보니 편안한 성격을 가진 분들도 많았습니다. 미모와 편안함의 서로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을 친구를 통해서 보는 것만으로 부담없이 만족감을 느낀다면 의외로 둘 사이의 친구 사이가 깊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해 봅니다.

이 중에서 개인적으로는 나에게 없는 편안함과 미모가 서로의 부족함에 기인한 심리가 더욱 친구 사이를 가깝게 유지하게 한 쪽으로 무게를 두고 싶습니다.

참(zoom) (detailbox.tistory.com/)



지승의 행운의 운세
 (음력 10월 23일) 11월 20일

쥐띠	48년생 뱀의 재물이 들어오니 다시 나갈 대가 생기니 주의하라 60년생 노복에 비해 감찰의 이익이 생기는 운세이다 72년생 누구를 믿고 몸단장 말라. 크게 손해를 볼 것이다 84년생 재수는 원만한 편이며 작은 소원이려면 이루어질 수 있다	말띠	42년생 가까운 사람일수록 신용을 중시 여겨 약속을 잊지 말고 지켜라 54년생 어려운 일이 있을때 남밖에 귀인을 만날 것이다 66년생 몸매에 노력한 것이 얻고 보니 탐착지 않을 수 있다 78년생 미래를 위한 어떤 중요한 일을 마련해두는 날
소띠	49년생 빛진 일이 있다면 맑음에 청산되고 저축하는 여유도 생긴다 61년생 분수 이상의 재물은 귀하게 인연이 없으니 참고하라 73년생 재수대일이라 다간 것을 들어오고 새로운 것을 얻게 된다 85년생 성공에 청신호가 켜졌으니 기회를 놓치지 말라	양띠	43년생 뱀의 재물이 들어오고 가는 곳마다 유익 55년생 약간의 손해가 있었으나 훗날 이 손해가 더욱 큰 이익으로 다가온다 67년생 일의 진행이 순조로워 무리가 없는 계획이 세워질 것이다 79년생 옛 것을 지키고 먼 일을 계획하지마라
범띠	50년생 공연해 마음이 아프고 곤란한 마음을 내어 지킬 않는다 62년생 이득도 손해도 없는 평범한 날이니 내일을 준비하라 74년생 어떤 일에 결정자가 생기지만 승리는 귀하게 있다. 86년생 일을 늘어놓지 말고 규모를 줄이는 행위를 취하는게 좋다	원숭이띠	46년생 아파 밖으로 어수선한 일이 정리 될 것이다 58년생 어떤 소식이 이르도 잘못 전해온 소식을 잊으니 진실을 확인하라 68년생 진행하는 일에 장애가 생기지만 도리어 전화위복이 될 것이다 80년생 만사형통이라 모든일이 잘 풀릴 것이니 탄탄대로 이다
토끼띠	51년생 개운치 않은 일이 있고 가정에도 물결이 일어날 징조이다 63년생 행운이 있는날이지만 아랫사람의 하극상을 조심하라 75년생 주위사람과 갈등이 생기니 지금 있는 자리를 지켜라 87년생 방황적임을 일일 수기 있으니 심사숙고 하라	닭띠	45년생 잃는 돈과 얻는 돈이 정비례되고 있으니 길을 가는데 주의하라 57년생 몸 처럼 만나는 귀를 감을 맞이하라 하는일에 전력하라 69년생 뱀에게 귀한 신분의 발판이 있을 것이다. 미리 준비하라 81년생 연한 실타래가 좁혀져 풀리지 않을 것이니 신중하라
용띠	40년생 미래의 가능성은 보이지만 당장 실질적인 수확은 없을것이다 52년생 예산 보람이 없었고 석양에 반손으로 돌아오는 형상이다 64년생 주위와 갈등이 있었음에도 부도나 뒷사람에게 상의하여 결정하라 76년생 약권고후 끝에 승리하고 상대방의 것을 취하는 날	개띠	46년생 동쪽에 이르는 일이 있으니 한번 가보는것도 좋다 58년생 정치 자선을 낮추고 겸손하면 재물을 파할 수 있을 것이다 70년생 실패수가 아니라 몸대 다짐 우리가 있으니 주의하라 82년생 남의 말에 동요되지 말고 느긋한 마음으로 기다리라
뱀띠	41년생 이익을 다룰다가 중요한 일이 깨질 우려가 있으니 조심 53년생 건강에 특별한 유의할 필요가 있으니 조심하라 65년생 예상외의 좋은 일이 생겨 돈을 벌어들일 것이다 77년생 귀한 신분이 찾아와 도와주는 운이지만 구설수를 조심하라	돼지띠	47년생 어려운 일을 당할지라도 저정하여 도와주는 은인이 생긴다 59년생 질을 높고오래 문제가 있다면 양간간에 결정할 것이다 71년생 적은 것이 먼저 나가고 큰 것이 뒤에 이른다 83년생 몸의 쇠약이 우려되니 휴식과 스테미너보충에 유념하라

운세상담 역술인과 직접상담
 060-700-3663
 (07) 지승 현 미래예측학과 박사과정